자비행으로 역경 극복을

대한불교총화종
종정 혜각 스님



불기2569년 부처님 탄신일을 맞아 온 세상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시방세계에 고루 태평성세의 기운이 온 누리에 가득하길 발원합니다. 불기2569년 봉축을 축하하며 삼천대천세계를 비추고 계신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로 우리 사회가 다시 평화와 안정 속에서 희망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두가 자비와 사랑으로 소통하고 나와 남을 배려하며 부처님의 참 된 자비행으로 지금의 재난과 역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도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 수 있기를 부처님전에 발원합니다.

또한 금년 봄 전국적인 산불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속히 마음의 치유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자비행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처님을 닮아가는 수행자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대승정 목탁 스님



중생의 죄악은 깊고 무거워 생사를 돌고 돌며 갖은 고통 겪을새 이런 중생 구제하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모든 갈래 중생 고통 없애 주시며 인연법을 으뜸으로 중생의 무거운 죄악의 업장을 다 없애주시고자 사바세계에 나투셨습니다. 불기2569년 부처님 오신 참 뜻입니다.

우리 불제자들은 말이 아닌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극복을 위해 흘리는 뜨거운 눈물이야말로 묵은 업장을 녹이고 자신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참 눈물이어야 합니다. 수천 마디의 말보다는 단 한 번의 행이 더 소중하다 합니다. 사랑스런 마음으로 대하고, 같이 고통을 같이하며 슬퍼하며, 남의 일에 칭찬과 기쁨을 함께하고, 평등한 마음을 행하는 불제자 그들 자체가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진정한 보살입니다.

마음 밝히는 연등이 됩시다

종정협의회
회장 월인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비와 지혜의 등불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고,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는 단순한 등불이 아니라, 마음속 어둠을 걷어내고 서로를 향한 자비의 마음을 일깨우는 밝은 빛입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마음의 빈곤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닦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 기꺼이 나누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비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마음이고, 지혜는 올바른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대한불교승가종 사부대중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부처님처럼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는 수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리심 등불 밝히세

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송천 스님



一佛燈百千 其燈不滅燈
一人燈百千 自明燈法燈

한 등불로 백천의 등불을 밝히니 어둠이 모두 밝아지고 그 밝음이 끝내 사라지지 않느니라.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보살이 백천 중생의 마음을 열고 이끌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하고, 그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모든 선법(善法)이 계속 늘어나게 하는 것을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한다. 친애하는 불자와 국민여러분, 우리 모두 스스로를 온전하게 바로 세우고 참된 삶을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조국과 내가 하나임을 잊지 맙시다.

을사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스스로의 등불을 밝게 비추고 다 함께 행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진합시다. 성불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행복을 공유합시다.

중생 안락 위해 정진하자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능허 혜운 스님



오늘 우리는 거룩한 부처님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온 누리에 가득 퍼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세존께 귀의하며, 모든 중생이 평화와 행복 속에 살아가기를 서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여 년 전 인도 카필라국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시어, 일체중생의 고통을 근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보시고 출가하셨으며, 깊은 선정과 지혜를 통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세상 모든 이들과 나누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셨습니다. 인연을 함께한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계율을 청정히하라

불교조계종
종정 혜인 스님



언제나 계율을 청정히하라, 부디 마음을 바르게 하고 도(道)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리하면 동안거 결제동안 사천왕과 금시조와 함께 할 것이다

제자들이여 너희들은 각자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의지할지어다. 다른 이에게 기대려해서는 안된다. 이법(계율)을 등불로 삼고 의지할지어다. 다른법에 기대려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몸을 돌아보고 더러움이라 생각하며 탐하지말라. 괴로움도 즐거움도 모두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빠지지 말라.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 그 속에 나는 없다고 다짐하여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된다. 이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나를 만나고 있어도 나와는 멀리 있고 계율을 청정히 하면 나와 함께 한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스님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지 옛날 사람이나 경전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바로 부처님의 자비심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생활 속 작은 배려, 양보, 미소 하나에도 불심이 깃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처님의 길을 일상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먼 수행이 아니라 가까운 마음 씀씀이가 바로 불교입니다. 이 부처님오신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씩 실천해봅시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이웃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그것이 곧 자비의 시작이고, 세상을 밝히는 연등입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부처님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발원합니다.

불교 종단 화합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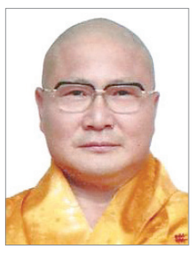
사)대승불교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불교계 종단은 화합단결하여 뭉치야만 불교가 살게 됩니다. 과거불도, 현재불도, 미래불도, 분별없는 자리에 불교승단을 세웁시다. 붓다 석가세존의 참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성제법, 팔정도법을 수행하고 육화경을 실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허공중에 코달아 놓고 숨쉬는 검둥소가 안되게 다함께 정진합시다. -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지혜로운 어른 스님들 뜻모아 뭉친다면 주위의 대중들도 배우고 못배우고 떠나서 신심내어 반성과 참회로 자신을 정화하고 불교를 위하여 큰 일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불교계도 대안을 세워서 능력있는 제일 종단들이 중심에 앞장서 분별과 시비없이 대통합의 불교연합 교단으로 종단통일을 서원합니다.

본래 하나인 마음 깨웁시다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스님



오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본래 하나이며, 둘로 나뉜 것이 없다고. 미움도, 다툼도, 고통도 결국은 한 마음을 잊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부처님오신날, 우리는 다시 한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곧 이웃의 마음이고, 이웃의 기쁨이 곧 나의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부처님의 길입니다. 서로를 향해 연등처럼 환히 마음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봉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청정한 마음자리를 간직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부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보살행으로 세상에 응답을

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
총무원장 성보 스님



오늘 우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을 밝히며 자비와 지혜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대승불교는 나 하나의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중생이 함께 건너는 배를 짓는 길입니다.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부처님처럼 먼저 다가가고, 말없이 돕는 보살행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나의 이익보다 타인의 아픔을 살피는 그 마음이 바로 불심이며, 작은 실천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이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중생을 위한 연등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그 길 위에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 퍼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상생과 치유로 미래를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스님



올해 우리는 예상치 못한 산불로 수많은 생명과 터전이 소실되는 깊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상처는 단지 눈앞의 재해를 넘어, 우리의 마음에도 커다란 슬픔과 상실감을 남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서로 의지하여 살아감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고통을 함께 껴안고, 상생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륵존불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부처님입니다. 지금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힘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마음을 모은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상처를 극복하고,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원력으로 세상을 품자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오늘, 우리는 다시 큰 서원을 세웁니다. 부처님은 한 사람을 넘어 모든 생명을 품으셨고, 한 시대를 넘어 모든 중생을 깨우치셨습니다.

우리 또한 작은 나를 넘어, 더 넓고 깊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원력은 꿈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미소 하나, 온기 어린 말 한마디가 세상을 품는 첫걸음입니다. 이웃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아픔에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곧 부처님의 길입니다.

오늘, 부처님께 마음을 모으며 큰 원력을 새깁니다.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품어 안는 대원이 우리 모두의 삶에 깃들기를 발원합니다. 분별심을 버리고 불국정토를 만들어 갑시다.

본래의 길을 따릅시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종정 혜봉 스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맞아, 우리는 다시 본래의 길을 되새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진실을 밝히시고, 바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으며, 모든 중생을 향한 한없는 자비와 지혜로 이어집니다. 전통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맑히고, 삶을 올바르게 하는 모든 실천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잇는 일입니다. 오늘 이 부처님오신날,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부처님의 본래 뜻을 따르기를 서원합니다. 바른 신심과 끊임없는 정진으로 전통을 계승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발원합니다. 이웃을 나로 보고 내가 이웃이 되고 하나가 됩시다.

자리이타 등불 켜자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사부대중에게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자비와 지혜와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여 행복과 희망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고귀한 마음씨와 최상의 행복을 얻게 하는 가르침과 모든 괴로움을 벗어버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행위 근본임을 깨달으시고 부처님의 위력과 의지력으로 이웃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 미생물까지도 불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마음, 청정하고 아름다운 마음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의 사명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부처님의 본불성(本佛性)과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등불을 켜야겠습니다.

덕을 성취하세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관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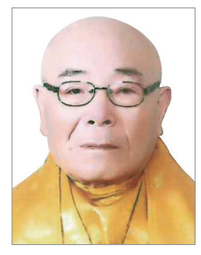
덕건명립(德建名立). 덕(德)은 선행 선심이다. 건(建)은 '세우다'의 뜻이고 명(名)은 자명야이니 '스스로 명련함'이다. 입(立)은 서다가 그 본의지만 '나타내다'는 것이다.

형단표정(形端表正)은 '모양이 단정(端正)하면 표면도 바르게 된다'는 뜻으로 덕이 갖추어진 사람은 반드시 그 덕에 따라서 훌륭한 명성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형체가 굽었다면 외모 역시 굽게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기 잡기〉에도 형체가 바르면 그림자도 반드시 바르다고 했다. 덕을 성취하면 영명(英名)은 세상에 나타나는 법이니 그것은 마치 모습이 바르면 그림자 역시 바른 이치와 같은 것이다.

잘사는 세상 만들어 갑시다

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수암 스님



행복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미소를 머금은 행복이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삼계가 두루 열리고 작약과 수련이 활짝 핀 앞뜰에 벌과 나비가 춤추고. 저건너 산에서는 꾀꼬리 소리요 란한데. 어찌몽환 속에 피는 공화를 혼자서 잡으려 애를 씁니까. 더불어 재미있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높이 떠올랐던 화살도 기운이 다하면 땅에 떨어지고 피었던 잎도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갑니다. 만물은 원래부터 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바의 참모습은 수억만 년 동안 비춰주는 해와 같고 티없이 맑은 창공과 같아 청정한 것인데 분별심을 일으키는 마음에서 하나가 열이되고 열이 백이 되고 그로써 욕심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도를 바로 보고 분별의 고집을 버립시다.